

「2023년도 3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」의견반영 결과

지역 (개최일)	자체제작 프로그램 종합 평가 및 심의 의견
서울지역 (9월19일)	<p>① ‘딜라이브 스포츠 매거진’ : MSO협업을 통해 예능콘텐츠로 개발하거나 스포츠 마케팅을 동원해 회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콘텐츠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?</p> <p>- 지역적 한계와 이해관계로 인해 현재 MSO협업은 어려운 상황이며 스포츠 마케팅은 별도의 시간과 비용과 많이 소요되므로 내년 기획 단계부터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임.</p> <p>② ‘쿡방야사’ 는 역사와 음식을 연결한 참신한 기획이 돋보이지만 세계사를 다루는 만큼 지역성과 동떨어져 보인다. 향후 관내 지역과 연계한 콘텐츠로 개발할 의향은 있는지?</p> <p>- 이 프로그램은 공동제작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관내 지역만 다룰 수 없었으며 지역정보다 지역주민에게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된 것임. 시청률 등 반응이 좋을 경우, 자체제작물 등으로 기획을 고려해 보겠음.</p> <p>③ ‘지혜의 숲’ 은 영상퀄리티와 완성도가 훌륭한데 대외 마케팅 등을 통해 공개방송 프로그램으로도 제작이 가능한지?</p> <p>- MGTV와 공동기획한 프로그램으로 프리미엄급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마케팅도 MGTV와 협업을 통해 진행하였음. 공개방송 등의 계획은 없지만 향후 제작을 검토해 보겠음.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견</p> <p>① 콘텐츠 외형 퀄리티보다 주제, 소재 등 내용을 중시할 것을 제안</p> <p>-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영상 퀄리티 또한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.</p> <p>② 시청자 트렌드를 콘텐츠 제작에 반영할 것.</p> <p>-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 소재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.</p> <p>③ 과거 시청률이 높았던 콘텐츠를 재조명하고 활용할 것.</p> <p>- 시청률이 높았던 자체제작물은 시리즈로 연속 제작하고 있으며 뉴스도 시청자 반응이 높았던 소재는 기획시리즈로 제작하고 있음.</p>

지역 (개최일)	자체제작 프로그램 종합 평가 및 심의 의견
경기지역 (9월21일)	<p>① ‘딜라이브 뉴스(케이블TV 공동기획 코너)’ : 기획기사의 특성상 연결성이 필요해 보이는데 4세 MSO의 기사가 순서대로 소개되다보니 자세한 내용 전달이 시간의 제약 등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. 해결책은 없는지?</p> <p>- 위원회의 지적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절충안으로 연말 쯤 4개사가 공동기획한 세미나 등을 계획 중에 있음.</p> <p>② ‘딜라이브 스포츠 매거진’ 은 대표적인 지역밀착형 콘텐츠지만 야구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스포츠 동호회를 소개할 순 없는지?</p> <p>- 초등학교 야구대회와 생활체육 야구는 회사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육성·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기타 스포츠 동호회까지 흡수하기엔 회사의 역량과 후원이 더 뒷받침되어야 가능함. 향후 위원회의 고견을 참고해 노력해 보겠음.</p> <p>③ ‘지혜의 숲’ 은 TV매체뿐만 아니라 기타 플랫폼에서도 활용이 가능해 보이는데 향후 광고 등 방송사 수익으로 연계할 마케팅 계획이 있는지?</p> <p>- MGTV와 공동기획으로 제작되어 곤란한 상황임. 차후 재제작 시 협의점을 찾아 마케팅 시장도 공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음.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견</p> <p>① 지역 주민단체와 콘텐츠 제작 협업 마련 등을 제안</p> <p>- 과거 지역에 기반의 마을미디어센터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나 방송에 대한 인식부족과 심의 관련 문제점이 극복할 과제임.</p> <p>향후 일반인 대상 전문교육 등을 병행하는 방법을 모색 중임.</p> <p>② 시민기자, 시민제보 영상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제안</p> <p>- 회사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이외에도 뉴스 취재 시 지역주민의 출연 등 시청자와 친숙해질 수 있는 방송제작 시스템 구축을 고민하고 있음.</p> <p>③ SNS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 참여를 독려할 것을 제안</p> <p>- 회사는 지난해부터 전문성을 갖춘 TF팀을 운영 중이며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음.</p>